

푸른 자연의 고장 경산(慶山)

강 욱 / 자유기고가



경상북도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경산(慶山)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풍요로운 문화의 고장이다. 경산시는 대구광역시와 영천시, 그리고 아래로는 청도군과 맞붙어 있다. 대구와 영천의 경계인 경산 북쪽은 팔공산의 지맥으로 산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시의 중앙은 금호강이 흐르고 있어 강 연안에 형성된 평야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넓은 구릉지대로 비옥한 농토를 안고 있는 경산시는 농업과 공업이 동시에 발달한 도농(都農) 복합형 도시로 1,400여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해 있다. 경산은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대구선 철도, 국도, 산업도로 등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다. 또한 영남대, 대구대 등 13개의 대학이 위치해 국내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교육·연구도시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다.

경산은 옛 삼한시대에 압독국의 고도(古都)로서 유서 깊은 역사가 깃들여 있다. 또

한 많은 문화유산과 함께 우리나라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3성현(三聖賢)'이 태어난 고장이다. 즉 신라의 고승으로서 대문장가인 원효성사, 역시 신라의 대학자로 이두를 만들어 유교의 경전을 해석한 설총, 「삼국유사」를 찬술한 것으로 유명한 일연선사가 경산 땅에서 태어났다.

「삼국사기」를 보면 대구 땅에 달구벌이라는 부족 국가가 이루어져 있었을 적에 오늘의 경산 땅에도 압량 또는 압독국이라는 부족 국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신라시대에 지금의 진량면 현내리에 부곡이 설치되었다. 부곡은 전쟁의 포로, 정복된 지역이나 반란이 일어난 지역의 주민, 역모 죄인의 유족을 살게 한 특수 지역으로 그들의 신분은 노비나 천민과 비슷했다.

와촌면 강학리 팔공산 자락에는 불굴사가 있다. 이 절은 크게 꾸미지 않은 자연스런 모습으로 찾는 이에게 편안한 느낌을 준다.

불굴사는 신라 때 창건한 절로 조선시대에는 은해사를 말사로 거느릴 만큼 큰 절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500여동의 건물에 12암자를 거느렸다고 하니 가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땅의 대부분의 사찰이 그러하듯 불굴사도 조선 중기 이후 많은 유생들의 간섭과 방해로 절이 쇠퇴해져 갔다.

설화에 따르면 불굴사 스님들이 유생들의 횡포로 곤혹을 치르던 어느날 점잖은 한 손님이 찾아왔다. 스님들은 그에게 유생들의 횡포를 막는 방법을 물었다. 그러자 그 손님은 절 뒤쪽에 있는 거북의 눈을 빼면 횡포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스님들은 크게 기뻐하며 당장 거북의 눈을 빼 버렸다. 그러자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며 큰 비가 내려 산사태가 나 절이 묻혀 버렸다고 한다.

현재 불굴사 보호각 안에 있는 약사여래 입상은 산사태로 땅속에 묻혀있던 것을 발굴한 것이다. 이 부처는 효험이 있는 부처로 알려져 이곳 사람들이 미륵님이라 부르고 있다. 또한 경내의 삼층석탑은 보물 제429호로 지정되어 있다. 높이 7.43m에 이르는 이 석탑은 이중 기단 위에 사각 삼층석탑으로 세워진 전형적인 신라 석탑의 양식을 취하고 있다.

팔공산은 대구와 군위, 영천, 경산을 경계하는 우리나라 명산 중의 하나이다. 이 산은

산체가 워낙 커서 골짜기마다 수많은 암자와 비경을 간직하고 있다. 속칭 갯바위로 불리는 관봉석조여래좌상은 와촌면 대한리 팔공산 관봉 꼭대기에 경산을 지키듯이 바라보고 앉아 있다. 보물 제431호로 지정된 이 불상은 높이 6m의 화강석 1석으로 조각된 것인데, 머리 위에 1.8m의 평평한 자연석 하나를 갯 모양으로 쓰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좌불은 원광법사(圓光法師)의 수제자인 의현대사가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선덕여왕 7년(638)에 조성하였다 한다. 이 좌불은 얼굴이 수려한 데다 두 볼이 풍만하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어 인자하기보다는 준엄한 모습이다. 갯바위에게 지성껏 빌면 한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영험 많은 부처로 알려져 있어, 전국에서 예불하러 온 사람들이 주야로 끊이지 않고 찾아들고 있다.

경산 땅을 말할 적에 신석기 시대의 유물인 석기나 토기가 곳곳에서 출토되고 선돌로 보이는 거대한 암석 다섯 개가 있는 것 말고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요 무형 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된 ‘한 장군 놀이’이다.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 일대에 전승되고 있는 이 행사는 부락제의 성격도 있으나 ‘강릉 단오제’나 ‘은산 별신굿’과 흡사한 민속놀이이다.

자인면 일대의 주민들은 한 장군이란 인

물이 실제 인물이었거나 아니었거나 상관없이 지금도 그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지니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한 장군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가뭄이나 역병이 돈다고 믿어 해마다 단오가 되면 제사와 함께 여원무라는 춤을 추는 한 장군 놀이를 벌여왔다.

한 장군이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나 임진왜란 때 여자로 가장하여 여원무라는 춤을 추다가 났을 잃고 구경하는 왜군을 일시에 찢러 물리쳤다는 무용담이 전해져 온다. 여원무는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춤이다.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자인면 북쪽에 있는 도천산에 한때 왜구가 주둔했는데 그들이 노략질을 하며 이곳 사람들을 자주 괴롭히자 한 장군이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 여원무를 마련했다. 그는 모자 두 개를 만들고 거기에 색종이 꽃을 달고 오색 종이를 둘러 누이동생과 함께 이 모자를 쓰고 여자 옷을 입고 산아래 버들 못 가에서 광대와 주민들과 함께 춤을 추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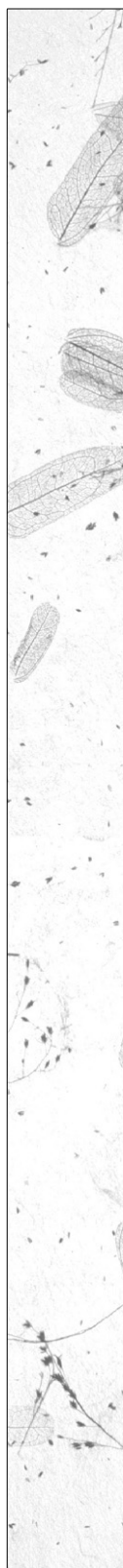
그들이 모두 칼과 창을 옷 속에 감추고 놀이판을 벌이니 왜적들이 산에서 내려와 구경을 했는데 장군이 모자를 벗어 던지는 것을 신호로 삼아 모두 칼을 빼어들고 왜구를 쳐서 모조리 죽여 못 속에 던지니 버들 못이 피로 물들었다고 한다. 사로잡은 왜구는 독의 돌에 얹어놓고 목을 쳤다고 하는데 지금도 왜석이라고 부르는 칼자국이 남아 있는

돌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때부터 한 장군을 기리며 사당을 세우고 단오날이면 여원무를 추며 제사를 올렸다. 석류꽃이 붉게 피고 앵두가 열리는 오월 단오날 전후에 이 행사는 3일 동안 펼쳐진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은 아낙네들이 자인 장터에 몰려들어 여원무를 추며 사당으로 향하는데, 청룽기, 백호기, 주작기, 현무기 같은 것이 사당에 서고 농기에 이어 높이가 3m에 무게가 45kg이나 되는 여원 화관을 받쳐 든 두 사람이 따른다. 행렬은 한 장군 사당에 도착할 때까지 풍악을 잡고 강강술래에서처럼 둥근 원을 지어서로 뒤따르면서 도돌이 장단에 맞추어 계속해서 여원무를 춘다. 갖가지 가장 행렬이 시장을 한바퀴 돈 뒤 한 장군 묘소로 가서 제관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행사는 끝난다.

자인면 계정 숲 일원에서 매년 펼쳐지는 ‘자인 단오 한 장군 놀이’는 일대의 주민들은 물론 다른 고장의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구경꾼이 몇만명에 이른다. 이 축제 기간 동안에는 춤, 그네, 씨름 등 각종 민속놀이도 함께 펼쳐진다.

비옥한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경산 땅에서는 다양한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옛날 사과하면 대구를 연상한 적이 있었다. 바로 그 유명했던 대구 사과의 주산지



지금의 경산 땅이었다. 그러나 사과는 1970년대 초 부란병의 영향으로 과수원이 폐원되면서 재배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신 대체작목으로 대추를 심기 시작한 것이 이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하여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산의 특산품으로 자리 잡았다.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경산대추는 알이 굵고 당도가 높을 뿐 아니라 비타민 C와 무기질이 풍부하여 건강 스테미너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경산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기후조건에서 연간 16,000여 톤씩 생산되는 경산 포도도 특산품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특히 포도주는 이 중에서 맥반석토양에서 재배하고 송이마다 일일이 종이로 싸서 농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고당도의 무공해 포도를 엄선해 재료로 사용한다. 정통식 포도주는 1998년 후반기부터 적포도주인 노을와인(알콜함량 12%)과 브랜드 타입의 증류수인 오네페(알콜함량 45%)가 생산되고 있다. 적포도주는 항암, 항산 효과가 밝혀지면서 기능성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자인지역은 예로부터 흑염소를 방목하여 기른 곳으로 유명하다. 이 고장에서는 육질이 좋은 염소고기가 많이 생산되었고 염소를 이용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또 경산지역에서는 일찍이 쇠고기를 이용한 다양한 조리법이 발달하여 왔다. 이곳의 별미 음식

식으로는 등심을 이용한 불고기와 갈비살 등이 유명하다. 많은 소비자들이 맛과 영양이 뛰어난 자인 한우고기를 맛보기 위해 자인을 찾고 있다. 그 밖에도 쇠꼬리탕, 육즙, 양즙, 도가니탕 등이 별미음식으로 손꼽힌다.

팔공산 자락과 금호강 줄기에 자리한 경산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기관과 섬유, 기계, 금속제품 등 수많은 첨단 기업체가 산재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 평가 받는다. 경산은 21세기 첨단 산업도시로서의 면모도 갖고 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산·학·연·관이 공동협력으로 설립한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술 집산화단지를 이루며 영남대학교 부지에 설립된 테크노파크는 연구개발단지, 기술혁신센터, 종합정보센터 등을 운영하며 지역 과학기술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산시는 첨단 산업도시로서의 기반 구축과 지식기반 농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경산시가 최종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삶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활터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